

◎ 도서관이 알아야 할 출판과 책 이야기 ◎



## 환경책 큰잔치



최성일\*

‘2006 환경책 큰잔치’(이하 ‘책잔치’)가 11월 17일부터 24일까지 여드레간 교보문고 서울 강남점에서 열렸다. 2002년 시작된 ‘책잔치’는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는다.

그동안 6월 5일 ‘환경의 날’에 즈음하여 잔치가 열렸지만 이번에는 월드컵 기간과 겹치는 등의 사정이 있어서 뒤로 미뤄졌다. 11월 17일 있는 ‘책잔치’ 개막식은 방송인 정재환씨 사회로 오후 3시부터 1시간 남짓 진행되었다.

### 잔치의 시작

2002년 4월께였다. 북한산 터널 때문에 “그거 문제 있다”라고 말하던 종교계 인사와 ‘결개그림’이라는 예술장르를 세계에서 처음 개발한 설치예술가 최병수씨가 피한에게 테러를 당했다. 피한은 알고 보니 건설회사로부터 돈 받고 잠시 잠깐 테러리스트가 된 사람이었다. 여러 환경단체들이 탑골공원 앞에서 “골재장사 하면서 사람까지 때리지 말라”고 규탄대회를 열었다. 당시 ‘풀꽃세상’에서 일하던 필자도 정상명 대표와 함

께 집회 현장에 갔다.

비통한 얼굴로 테러를 규탄하는 도중 ‘환경정의’의 서왕진 처장을 만났다. 서 처장에게 “집회 마친 뒤 어디 갈 거냐?”고 물었더니, “강남의 무역센터인가 어딘가에 작은 부스를 하나 얻어 환경책 전시를 하려고 하는데, 그 섭의를 위해 한강을 건널 것이다”라고 했다. 그래서 “거기 뼈까번쩍한 공산품들 전시하는 데 괜히 끼어들지 말고, 가까운 교보에 가서 교보 사장님 만나서 금년 환경의 날에 환경책잔치를 하겠다. 장소를 좀 빌려주면 무지무지 고맙겠다, 앞으로도 계속할 건데, 전시 도중 아마 환경책이 평소보다 더 팔릴 거다. 그렇게 말해 보시라”고 권했다.

전부터 좋은 제안이라면 추호도 망설임 없이 접수하곤 하던 서 처장은 규탄집회가 끝난 뒤, 곧장 교보문고에 갔다. 교보문고 권경현 사장은 서 처장의 제안을 흔쾌히 접수했다. 한 시대의 상당히 절박한 문제에 대한 대한민국 최대 책방 책임자의 양식이 돋보이는 결정이 아닐 수 없었다. (〈한겨레〉 11월 17일자 책·지성 섹션에 실린 소설가 최성각의 회고다.)

이렇게 시작한 ‘책잔치’는 환경정의(옛 환경정의 시민연대), 풀꽃평화연구소, 교보문고가 함께 꾸려왔다. 올해는 교육인적자원부, 문화관광부, 환경

\* 출판평론가, robli@freechal.com

◎ 도서관이 알아야 할 출판과 책 이야기 ◎

부,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사)어린이도서연구회, 교보생명문화재단, 인터넷신문 프레시안의 후원을 받았다.

**환경책이란?**

어떤 책이 환경책일까? 다시 소설가 최성각의 글을 옮긴다. “환경책에는 지금 우리네 살림살이가 최소한이나마 사람다운 삶으로 지속되기 위한 깊은 고민과 모색이 배어 있고, 생각이 세상을 바꾼다는 신념과 뜨거운 감성이 있고, 의심하지 않고 진행되는 우리 문명에 대한 진단이 있고, 인간의 얼굴을 한 상식의 힘도 보여주고 있고, 자궁의 마음과 땅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 뿐 아니라 우리들 희망의 근거인 ‘다음 세대’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해법이 상상력과 감수성에 호소하는 방식으로 담겨 있습니다.”

또한 “생명과 행복의 문제가 환경책보다 더 정직하게 담겨 있는 책들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환경책’이라 부르는 이 책들은 우리시대가 요구하는 좋은 책들의 정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책과 판매량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책잔치’가 환경책을 널리 알려 독자에게 좀더 다가가게 하는 행사이기는 하지만, 많이 팔린 책은 환경책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내 개인적인 생각이다. 『야생초편지』가 ‘다음 100년을 살릴 환경책들’ 목록에 들어있는 해도, 100만부 넘게 팔린 밀리언셀러를 환경

책이라고 하는 건 곤란하지 않나 싶다. 현재로선 『오래된 미래』를 판매부수가 가장 많은 환경책으로 봐야하지 않을까.

**실행위원**

나는 ‘책잔치’와 꾸준한 인연을 맺어왔다. 2003년과 올해는 실행위원으로 참여해 활동하였고, 2004년은 실행위원 명단에 이름을 올려냈었다. 2006년 ‘책잔치’ 실행위원으로는 필자 말고도 인천도시생태환경연구소 박병상 소장을 실행위원장으로 김정숙 안천중 교사, 김종락 <문화일보> 기자, 예진수 장서가 겸 책평론가, 오성규 환경정의 사무처장, 유승준 영남중 교사, 이수중 성서중 교사, 장성익 <환경과생명> 주간, 조명래 단국대 교수, 최성각 소설가 같은 분이 수고하셨다.

그러면, 실행위원은 무슨 일 하나? ‘우리시대의 환경고전’, ‘올해의 환경책’, ‘다음 100년을 살릴 환경책들’을 고르고, ‘한우물상’ 수상자를 선정한다. 또 특별전시할 아이템을 정한다. 올 ‘책잔치’에서는 FTA·신자유주의·신개발주의·세계화 비판서, 채식의 가치를 일깨우는 책, 환경매체들을 특별전시했다. 올해부터는 실행위원들이 뽑는 환경책 목록의 숫자를 제한하지 않기로 했으며, 이러한 논의를 하는 ‘책잔치’ 실행위원회의 회의 분위기는 꽤 뜨겁다. 한편, ‘책잔치’는 ‘새롭게 읽자, 다르게 살자’를 표어로 내세운다.



## 우리시대의 환경고전

2005년부터 선정하기 시작했다. 올해는 지난해 선정된 12권에다 5권을 추가하여 17권이 되었다. '2006 우리시대의 환경고전' 목록은 아래와 같다.

- 『가이아』(제임스 러브록, 홍옥희, 갈라파고스)
- 『간디의 물레』(김종철, 녹색평론사)
- 『경제성장이 안되면 우리는 풍요롭지 못할 것인가』(더글러스 러미스, 김종철·이반, 녹색평론사)
- 『나라 한알 속의 우주』(장일순, 녹색평론사)
- 『나무를 심은 사람』(장 지오노, 김경은, 두레)
- 『녹색세계사』(클라이브 폰팅, 이진아, 그물코)
- 『도둑맞은 미래』(테오 콜번 외, 권복규, 사이언스북스)
- 『모래 군(郡)의 열두 달』(알도 레오폴드, 송명규, 따님)
- 『성장을 멈춰라』(이반 일리히, 이한, 미토)
- 『엔트로피』(제레미 리프킨, 이창희, 세종연구원)
- 『오래된 미래』(헬레나 노르베리-호지, 김종철·김태연, 녹색평론사)
- 『우리들의 하느님』(권정생, 녹색평론사)
- 『월든』(헨리 데이빗 소로우, 강승영, 이레)
- 『작은 것이 아름답다』(E.F. 슈마허, 이상호, 문예출판사)
- 『조화로운 삶』(헬렌 니어링·스코트 니어링, 류시화, 보리)
- 『침묵의 봄』(레이첼 카슨, 김은령, 에코리브르)
- 『한살림 선언문』(김지하 외, 한살림)

## 올해의 환경책

따져보면 환경과 무관한 사회적 사안이 있으랴. 그럼에도 예년과 달리 사회적 쟁점을 다룬 책들이 '올해의 환경책'에 적잖이 들어간 것은, 환경이 사회문제와 맞닿아 있을뿐더러 우리의 반환경적 삶을 제발 다시 살펴보라는 간곡한 경고음으로 들린다.

『침묵과 열광』(강양구 외, 후마니타스, 2006)은 지난 겨울 파국을 맞은 이른바 '황우석 사태' 7년의 기록이다. 이 책의 필자들은 황우석 사태의 시작을 앞서 잡는다. 복제소 영롱이가 태어난 1999년 초까지 거슬러 오른다. 그들은 '우리 모두가 속았다'는 식의 세간의 시각에 동의하지 않는다. 황우석 스캔들은 한국의 정치·경제·사회 구조적 문제 탓이 크다는 것이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필자들은 황우석 교수를 중심으로 한 '과학기술동맹'의 형성과 발전, 그리고 붕괴의 과정을 살핀다.

『부안, 끝나지 않은 노래』(고길설, 앨피, 2005) 역시 1년6개월여에 걸친 부안군민들의 방사성폐기물처분장 반대투쟁의 전말을 담았다. 지은이가 '부안 항쟁'이라 부르는 이 싸움은 "위험사회를 제조하는 핵폐기장 및 양성자기속기 사업의 현존성은 물론이거니와 핵산업정책에 대한 집단거부였으며, 핵 없는 세상을 염원하며 에너지 대안을 요구하는 생명·민주의 부르짖음"이었다. 그는 자신을 지탱하고 기억하기 위해 이 책을 썼다.

르포산문집 『발바닥, 내 발바닥』(김곰치, 녹색평론사, 2005)은 새만금방조제,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구간, 북한산국립공원을 관통하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퇴계원 구간 제4공구 등 소위 '국책사업' 건설현장을 찾아 나선다. 그런데 이 세 곳의 싸움은 모두 건설족의 승리로 마무리된다. 그럼에도 르포작가는 "생명의 대안은 따로 있을 수 없고, 생명의 대안은 오직 생명 그 자신"이라고 말한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사패선 터널의 대안으로 제시된 우회노선은 그저 외곽순환도로의 연장선이라는 얘기다.

가공식품의 해로움과 한미FTA 협상은 현재진행형이다. 『과자, 내 아이를 해치는 달콤한 유혹』

◎ 도서관이 알아야 할 출판과 책 이야기 ◎

(안병수, 국일미디어, 2005)은 가공식품의 가공할 위험성을 조목조목 파헤친다. 지은이는 '생활습관병' (성인병)을 일으키는 원인 가운데 하나로 과자나 청량음료 따위의 가공식품을 지목한다. 가공식품은 허점투성이의 먹을거리로, 그 속내를 안다면 도저히 입에 댈 수 없는 것들이다. 널리 알려진 제과회사의 간부를 지낸 이의 자기고발에 독자들도 화답했다. 이 책을 계기로 식품첨가물의 위험성을 알리고 화장품의 독성을 드러낸 책들이 잇달아 출간되었다.

한미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고 나서 우리에게 가해질 압력은 상상을 훌쩍 뛰어넘는다. 『한미 FTA 국민보고서』(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그린비, 2006)는 제목대로 종합보고서다. 한미FTA가 우리사회 각 분야에 끼칠 영향을 다뤘다. 환경에 미칠 영향을 다룬 글은, 먼저 자유무역협정이 지향하는 내국민대우·최혜국 대우·이행의무부과금지의 3대 원칙이 환경주권을 심각하게 위협할 거라 내다본다. 아울러 식품의 안전성을 크게 해친다. 상하수도 민영화로 공공재인 물이 사유화된다면 공공서비스의 기본원칙마저 무너질 것이고, 농산물 개방으로 농업이 붕괴하면 농업의 환경적 가치와 기능이 감소하거나 아예 없어져 엄청난 환경비용을 쏟아 부어야 한다.

**그 밖의 국내서와 번역서**

이외에도 '2006 올해의 환경책'으로 꼽힌 국

내 저자의 책은 세 권 더 있다. 장성익 주간의 『대한민국을 멈춰라』(환경과생명)는 우리사회에 만연한 경제지상주의와 개발만능주의를 비판한다. 최성현의 『산에서 살다』(조화로움삶)는 '바보 이반'이 산에 사는 친구들(못생명)과 사귄 이야기다. 『생태학의 담론』(아르케)은 1990년대 초반 『생태위기와 녹색의 담론』(나라사랑)으로 생태 담론의 지평을 연 문순홍 선생을 기리는 추모선집이다.

번역서는 네 권이 선정되었는데, 데이비드 스텝키와 홀리 드레슬은 '나쁜 뉴스에 절망한 사람들'을 위해 『굿 뉴스』(조용주 옮김, 산티)를 전한다. 친환경 실천 사례를 담았다. 『문명의 붕괴』(강주현 옮김, 김영사)에서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환경파괴와 무분별한 개발을 고발한다. 헤르만 셰어의 『에너지 주권』(배진아 옮김, 고즈윈)은 에너지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뤘고, 마크 라이너스의 『지구의 미래로 떠난 여행』(이한중 옮김, 돌베개)은 지구온난화현상이 가져올 지구의 앞날을 미리 그려본다.



**한우물상**

2003년 두 번째 '책잔치'부터 어려운 출판여건에도 환경책 출간을 소명으로 삼아 묵묵하게 출판을 통한 환경문화운동을 벌여 오신 분과 출판사에게 '한우물상'을 드리고 있다. 그 첫해는 도서출판 따님의 송대원 대표와 수문출판사 이수용 대표에게, 2004년은 도서출판 그물코의 장은성 대표에게 드렸다. 지난해는 환경책을 전문적

으로 번역하는 이한중 번역가에게 돌아갔다. 올해는 고(故) 문순홍 선생과 달팽이출판 김영조 대표에게 한우물상을 드렸다. 달팽이출판에게 한우

물상을 드리는 까닭은 나의 '작품'이다. 내가 쓴 선정이유는 달팽이출판 김영조 대표에게 드린 한우물상의 문안이기도 하다. ㉞

토끼와 거북이 우화에 나오는 거북이를 느림의 상징으로 여기지만, 거북이보다 느린 달팽이는 느림의 대명사가 아닐까요.

2003년 여름 『야생의 순례자 시튼』으로 첫발을 디뎠던 2006년 가을 『사막의 아나키스트』까지 열여섯 권을 내는 동안, '달팽이'의 발걸음은 결코 느리지 않았습니다. 아킬레우스도 못 따라잡을 발걸음이지요.

'달팽이'가 펴낸 책 16권은, 『녹색의 상상력』을 빼면 모두 번역서라는 아쉬움은 있지만, 전부 남들이 눈길을 주지 않는 환경책입니다.

요즘 같은 출판 사정으로는 쉬운 일이 아니지요. 더구나 '인 출판'의 어려움을 딛고 얻은 알찬 열매들이어서 더할 나위가 없지요.

'달팽이' 출간도서의 뒤표지 날개 아래쪽에는 달팽이 그림과 함께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달팽이출판은 자연과 사람의 조화로운 공생을 희망합니다." 어느 자리에 선가 김영조 대표는 이를 두고서

"공생은 사람의 관점이다. 사람은 자연에 예속되어 자연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라야 한다"고 풀었습니다. 힘든 여건이지만 부디 그 마음 잃지 마시라는 뜻으로 존경과 고마움을 담아 2006년 한우물상을 드립니다.